

대를 이은 어머니의 손맛과 따스한 이웃 사랑



남양주시 조안면 기와집순두부는 어머니의 손맛을 지키며 아들 김병철·정인숙 부부가 30년 넘게 운영하고 있다.

조부모가 터를 잡은 시골 마을에서 부모가 한옥을 짓고, 어머니의 손맛을 믿은 아들 부부가 그 집을 입소문난 맛집으로 키워냈다. 남양주시 조안면 기와집순두부는 이렇게 3대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유서 깊은 음식점이다. 3대인 김병철·정인숙 부부는 아들에게 4대째 기와집순두부를 전해주며 한 가지 의미를 더했다.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 서울아산병원에 후원을 시작한 것이다.

30년을 지켜온 어머니의 손맛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은 북한강변을 따라 펼쳐진 멋진 자연 풍경이 매력적이어서 서울 근교 드라이브 코스로 인기 높다. 그중에서도 기와집순두부는 반드시 들러야 할 지역 맛집으로 손꼽힌다. 최근에는 한 TV 프로그램에서 '푸딩 순두부'라는 별칭이 붙은 이후로 젊은 손님들의 발길이 잦아졌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인사하다가 남양주시에 산다고 하면 ‘거기 북한강변에 맛있는 순두부집 있던데’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때마다 뿌듯하면서 자랑스러웠죠. 순두부 하면 어른들만 좋아할 것 같은데 요즘에는 아이들, 청년들까지 많이 오는걸 보면서 우리집 음식에 더 큰 자부심을 갖게 됐어요.”

김병철 씨가 기와집순두부를 시작한 1980년대 말에는 명절이면 집에서 순두부를 직접 만들었다. 교통도 불편한 외딴 시골에서 음식점을, 그것도 집에서 만들어 먹는 순두부를 판다는 건 거의 모험에 가까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의 손맛을 믿었다. 그가 나고 자란 한옥집을 개조해서 순두부집을 열었다. 좋은 재료를 아낌없이 써 특별한 순두부를 만드는 어머니의 손맛은 금세 소문이 퍼졌고, 음식점을 연지 1년 만에 줄서서 기다리는 순두부 맛집으로 성장했다.

30년이 훌쩍 넘은 지금도 기와집순두부는 변치 않는 맛으로 남녀



기와집순두부의 대표 메뉴인 순두부와 재래식 생두부를 소개하는 김병철·정인숙 부부.



김병철·정인숙 부부는 순두부부터 반찬까지 좋은 재료만 쓰고 옛날 어머니 손맛을 그대로 지키고 있다.

노소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다. 어머니가 만들던 그 맛을 머느리 정인숙 씨가 고스란히 이어받았기 때문이다. 국산콩만 써서 옛 방식 그대로 만들고, 단출한 반찬 하나하나도 옛날 어머니 손맛을 그대로 지킨다. 좋은 재료만 쓴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농가에서 좋은 콩을 보내면 가격을 한 푼도 깎지 않는다. 좋은 재료를 쓰고 전통 제조법을 그대로 지키는 것, 기와집순두부의 30년을 이어 온 핵심 원칙이다.

사고와 질병을 겪으며 후원을 결심하다

김병철 씨는 기와집순두부가 유명해지자 가족 모두 1년에 한 번 반드시 서울아산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게 했다. 건강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에 시작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김병철 씨와 부인 정인숙 씨의 생명을 구한 일이 됐다. 2014년 건강검진에서 정인숙 씨의 머리에서 종양이 발견됐고, 서울아산병원의 발 빠른 조치로 위기 상황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 뒤이어 찾아온 유방암도 초기에 발견해 바로 치료할 수 있었던 것도 건강검진 덕분이었다.

서울아산병원에 후원을 결심하는 결정적 계기는 아들 김민우 씨의 교통사고였다. 큰 사고로 장애를 입을 위기에 처한 것이다. 긴 연휴를 앞둔 터라 입원과 수술 자체가 쉽지 않았고 두 번의 수술이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서울아산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기적적으로 장애 없이 퇴원할 수 있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며 김병철 씨는 서울아산병원 후원에 대해 알게 됐다.

“여유가 생기니까 다른 사람을 돕는 일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지역사회와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된 봉사단체에 조금씩 기부를 했어요. 그런데 개인이 기부한다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아들의 사고를 계기로 서울아산병원 후원에 대해 알게 됐어요.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취지로 운영된다고 하니 그럼 당연히 해야지 싶었어요.”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이어지는 이웃사랑의 뜻

지난해 김병철 씨도 전립선암을 진단받았다. 그동안 지켜봐 온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에 신뢰를 갖고 치료에 임한 그는 지난해 말 30차에 걸친 기나긴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그리고 오래 전부터 약속했던 친구들과의 여행도 너끈히 다녀왔다. 남편 걱정도 속 태우던 아내 정인숙 씨는 겨우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방사선치료가 정말 힘들어서 남편이 체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매일 전화로 잘 있다고 하더니 돌아온 걸 보니까 더 건강해져서 왔어요. 그쪽이 더 몸에 맞는 거 같으니 아예 한 석 달 살아볼래 했죠.”

김병철 씨는 치료를 받으며 서울아산병원에 한번 더 후원을 했다. 가족들은 그의 후원에 찬성을 보낸 것은 물론, 아들 김민우 씨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후원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요즘 조부모님이 사시던 터를 조금씩 손보고 있어요. 경치가 좋아서 카페나 음식점을 내볼까 하고 있는데, 조부모님이 이끌어주신 거 같은 기분도 들어요. 주변 사람들이 ‘나이도 있는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고 해요. 그런데도 꼭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건 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식들과 손자들을 위해서예요. 좀 더 좋은 것, 의미 있는 무언가를 내 가족, 자식들에게 주고 싶은 부모 마음이지요.”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꾸준히 이어져온 마을과 집, 손맛에 ‘이웃사랑’이라는 가치까지 더한 김병철·정인숙 부부, 이들 가족의 4대째 이야기가 더 기대된다. **글 편집부**